

“경내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웬말”

거제 금강사 ‘수행도량 존폐 위협’ 반발...노선 변경 촉구

거제도 금강사(주지 성원)에 경내를 가로지르는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하촌 지역인 수월리와 양정리 마을 주민들이 거제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금강사 주지 성원 스님은 “경내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공사계획은 자연 파괴, 소음공해, 대기오염, 식수 단절 등 수행도량의 존폐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일”이라며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성명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공사 예산 부족의 이유를 들며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제 통영간 고속도로는 금강사 산신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설



고속도로 건설로 수행환경을 침해받고 있는 거제 금강사.

예정이다. 고속도로는 통영군 용남면 장문리에서 연초 송정까지 총 30.36km로 확장 연결되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957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공사다. 문제의 이 도로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 수익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지난 4월에 열린 1차 공청회와 4개월 뒤 개최된 2차

공청회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금강사와 고속도로 공사 대책위(위원장 김명호)는 “청와대,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및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서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9월 6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금강사 위쪽 산 속 보이지 않는 위치에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도로의 지형적 위치를 고려해 최대한 금강사에서 떨어지도록 계획했다”며 “도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종교적 활동에 방해 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다”고 밝혀 철회의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거제=하성미 기자

“자전거 타고 에너지 절약”

육천 종교계 캠페인 개최

육천 종교계가 에너지 절약과 종교화합을 위한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개최한다.

육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철)와 육천기독교연합회(회장 김하석), 육천 천주교성당(주임신부 박동철) 등 종교계와 육천군, 육천문화원은 9월 16일 오전 7시 자전거를 타고 육천공설운동장을 출발해 육천 시내를 돌며 자전거 타기와 차 없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한다.

스님과 목사, 신부 등 성직자들도 직접 자전거를 타며 종교 화합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군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혜철 대전총부지부장

10주년 맞는 약사보리회·교사불자聯

9월·11월 기념 법회 개최

약사여래의 손길로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불자약사보리회(회장 류창수)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신연섭)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불자약사보리회는 9월,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오는 11월 각각 창립 10주년 행사를 개최하고 초발사를 다지는 한편 불법 흥포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998년 창립한 불자약사보리회는 현재 100여 명의 회원이 매주 무료 투약봉사를 펼치고 있다. 그간 조계종사회복지대상(2002)과 조계종 공로패(2003)를 수상하는 등 봉사활동을 인정받았고, 올해는 한국NGO학회 최우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불자약사보리회는 9월 9일 창립 10주년 및 무료투약

100만명을 기념하는 법회를 개최해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실천 의지를 다졌다. 류창수 회장은 “중생의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봉사하겠다”며 “이웃의 아픔을 이루만지는 불자약사보리회의 활동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오는 11월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법회 및 수련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난 8월 대흥사에서 열린 여름수련회에서 신 회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청소년 불자 포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1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와 더불어 그간의 활동 내용과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념자료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복식사학자, 불교 복장직물 등 기증

1000여 점 국립중앙박물관에

원로 복식사학자 김영숙(81) 교수(前 숙명여대 의류학과 교수)가 평생을 걸쳐 모은 전통복식 1000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중에는 복장주머니(사진) 등 불교 복장직물 자료 150여 점도 포함되어 있어 불교 복식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증된 복식 자료는 우리나라 전

통 복식 500여점과 중국 소수민족인 묘족(苗族) 복식 및 장신구 200점 등이다.

특히 천연 염색의 여성 저고리와 지역 특색이 두드러지는 여성 속바지, 개성 지역의 아동용 돌봄, 궁중에서 사용된 대삼작노리개 등 계층과 지역을 망라하는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복식사 흐름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김 교수의 기증품은 지방 박물관 특성화 계획에 따라 9월 말 국립대구박물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중앙박물관 운영진 학에서는 “전통복식 재현을 위한 연구자료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학술적 가치가 크다”며 “섬유도시라는 대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국립대구박물관에 섬유직물 상설 전시관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생을 복식사 연구에 매진한 김영숙 교수는 현재 중앙복식연구원장과 아시아민족조형학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으며, <조선전기 불복



장직물의 이해 <고려의 불복장과 염직> 등의 저서를 펴냈다.

여수령 기자

조계종 포교사들 ‘8재계수계 실천 대법회’ 참여

“계율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를 외치며 전국에서 모인 조계종 포교사들은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제5차 8재계수계법회’에 참여했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이 주관한 이번 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증명으로 전계대화상 포교원장 혜홍 스님, 갈마아사리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교수아사리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이 맡아 수계식을 진행했다.

8재계를 굳게 지킬 것을 발원한 포교사들은 팔에 연비를 받으며 장재합장을 한 채 참회진언을 합송하고 계를 청정히 지킬 것을 재차 다짐했다.

8재계수계대법회 입재식에서 혜홍 스님은 “이번 법회는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 확인하고 포교사로서 단 하루라도 8가지 계를 철저히 지켜 스스로 행하며 수행과 타행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이다”며 “불법

을 ‘가르치신’ 사람이 아닌 ‘전달’하는 포교사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하고 개인 수행에 매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성홍 단장은 “8재계수계 실천 대법회는 우리에게 훌륭한 선지식이 되어 주며 또한 지계실천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바뀌고 사회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보람들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일 동안 포교사들은 오후 불식과 철야장전 및 참회기도에 동참하고 정우 스님과 초청강사의 특강도 들었다.

이번 수계식에는 10월 7일 풀수식을 갖는 예비포교사 400여명과 900여명의 포교사들이 참석했고 포교활동 공로를 인정받은 모범 포교사 11명은 총재상 및 단장상을 수상했다.

하성미 기자



한민족평화포럼은 8월 24일 네팔국립 카트만두대학에서 문화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네팔 문화교류 청신호

가넨드라 국왕 지원 의사 표명

네팔 국왕이 한국과의 문화교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가넨드라 네팔 국왕은 8월 24일 한국의 한민족평화포럼(상임의장 법혜) 회원 34명의 예방을 받고 “불교를 포함한 양국의 문화교류에 국가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족평화포럼은 “이번 교류확대를 위한 방편은 성공적이었다”며 “이를 계기

로 네팔 정부와 불교문화 교류, 인적 교류, 물적 지원 등의 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민족평화포럼은 네팔국립 카트만두대학에서 문화교류 협정을 맺고 문화기금과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가넨드라 국왕은 한민족평화포럼 상임의장 법혜 스님과 공동의장 이영숙(부산 코모도 관광호텔 대표)씨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임연태 기자

법주사서 사진 촬영대회 개최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에서 9월 2일 ‘제7회 속리산 법주사 전국 사진 촬영대회’가 열렸다.

보은군과 보은문화원이 주최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 청주지부(지부장 김성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한

국사진작가협회 김중호 이사장과 류경선 부이사장, 충북예총 장남수회장 등 전국의 사진동호인 600여 명이 참석했다. 촬영 작품은 9월 20일까지 접수 마감하며 심사를 거쳐 24일 결과가 발표된다. 시상식은 10월 6일 세광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혜철 대전총부지부장

조선왕실의례 반환 조정 영기 환수위 “일본 국회에 청원”

조선왕실의례 반환 조정이 일본측의 불참으로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9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조선왕실의례 반환 조정에 일본 왕실과 정부가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조정 일정이 12월 14일로 연기됐다. 반환 신청을 제기한 조선왕실의례환수위원회(공동의장 봉선사 주지 철안·월정사 주지 정남·김원웅 의원, 이하 환수위)는 일본 국회에 반환 관련 청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선왕실의례환수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국내 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례를 반환하라는 민사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환수위 간사 해문 스님은 “8월 24일 열린 1차 조정에 일본이 불참함에 따라 조정 일자가 9월 7일로 연기됐으나, 일본 정부가 끝내 응하지 않았다”며 “만일 최후까지 일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 법원에 강제조정명령을 신청한 후 일본 법원에 강제조정 효력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수위측은 유홍준 문화재청장에게 공내청을 방문해 조선왕실의례를 직접 살펴볼 것을 요청하는 등 환수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해문 스님은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일본 국회에 청원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제32회 중봉충렬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제 및 문화공연

임진왜란때 1300여 의·승병과 함께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옥쇄하신 중봉 조헌 선생과 의승장 영규대사의 살신호국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충과 의를 선양하여 나라 사랑의 참뜻을 되새기며 기허당 영규대사의 추모제와 문화공연을 개최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7년 9월 16일 오후 5시 • 장소 : 관성회관

식전행사) 영산대제

1부) 추모식

2부) 문화공연

- 나유타 "최봉중"
- 비보이 팀
- Universal B-boy krw
- 풍물굿패 "살판"

나유타 [최봉중]



비보이 팀 Universal B-boy krw



풍물굿패 [살판]



옥천불교사암연합회

에너지 절약과 종교화합을 위한

군민 자전거타기 캠페인



2007년 9월 16일 오전 7시

육천공설운동장 집결

경품 : 자전거 60대, 축구공, 농구공
참가자 전원 간식 제공

주최: 육천불교사암연합회, 육천천주교성당, 육천기독교연합회, 육천군, 육천문화원